

研究論文

#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전승의 역사적 변동 국면

권도경\*

- |                                       |          |
|---------------------------------------|----------|
| I. 들어가는 말                             | V. 나오는 말 |
| II. 설인귀 전설 자료의 존재 양상                  | <참고문헌>   |
| III.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금기구조와 서사<br>구조적 특징  | <국문요약>   |
| IV.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 전승의 역사적 세<br>국면과 향유의식 |          |

## I. 들어가는 말

고·당 전쟁의 중국측 주요 관련 인물인 설인귀가 한국의 문학 작품 속에서 풍부하게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고·당 전쟁의 한국측 당사자인 연개소문이 중국의 문학 작품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널리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의외로 받아들일 것만도 아니다. 인접한 두 국가의 관계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이해당사자인 양국의 민족의식 및 역사의식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이라면, 주요 관련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문학 작품을 통해 허구적으로 발화함으로써 담론을 펼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자국의 영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국의 영웅을 부정적으로 형상화 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양국은 서로 상대국의 관련 인물들에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고전소설 전공(thtjsh@naver.com).

대한 담론을 자국의 문학 작품 속에 풀어놓는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국 고·당 전쟁문학 속에서 설인귀란 중국의 전쟁 영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인물형상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고·당 전쟁의 중국측 문학 작품 속에서 당대종과 설인귀를 영웅화하기 위해 한국의 전쟁 영웅인 연개소문을 철저히 부정적인 안티-히어로로 묘사하고 있는 방식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한국 고·당 전쟁문학 속에서 중국 인물인 설인귀를 긍정적으로 형상화 할 수 있게 하는 향유 의식적인 동인이 된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연구 자료가 바로 경기도 파주 일대에 지역 전설로서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 설인귀 전설이다.<sup>1)</sup>

일차적으로 설인귀 전설은 고·당 전쟁의 주요 격전지 중의 하나였던 경기도 파주에 남아있는 설인귀의 흔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고·당 전쟁이라는 동북아 대전쟁에 대한 경기도 파주민들의 의식적인 거대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지역 내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중심으로 자기 향토사의 일부로 지역화 하여 인식한다. 그런데 고·당 전쟁의 주요 관련 인물인 설인귀의 흔적을 단순히 지명 유래담의 일부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수호신으로 신격화 하는 풍속신앙 전설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설인귀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철저히 기득권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인 인물일 뿐더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고대사 속에서 가장 압도적인 국제적인 위력을 자랑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선봉에 섰던 인물로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인물을 허구의 문학 속에서 해원하고 복원시키하고자 하는 풍속신앙 전설의 향유의식과는 지극히 거리가 먼 경우에 해당한다. 감악산의 설인귀 신앙은 통일신라시대에 호국신앙의 일부로 존재했다는 기록<sup>2)</sup>으로 미루어 볼 때, 타국의 인물을 신격화 하는 것을 넘어서 호국신화 하는 것은 민중 신앙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는 경기도 파주의 지역전설인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지역성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맥락이 개입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1) 경기도 파주의 설인귀 설화는 인물전설, 지명유래전설, 인문전설, 풍속신앙 전설 등 지역전설의 모든 하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설인귀 전설은 그 주인공인 설인귀가 타국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한국의 구비전설 지형도 속에 이식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텍스트와 진배없는 유형적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김윤우, 「감악산비와 칠원고석정」, 『경주사학』, 9(1990); 정우영, 「운계사 고석비와 감악산 무속신앙의 시원」, 『경기향토사학』, 6(2001).

지금까지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고는 설인귀 전설 중에서도 풍속신앙 전설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금기구조와 서사구조적인 특징에 관한 고찰이다. 두 번째는 설인귀 풍속신앙의 전승양상 속에서 확인되는 역사적인 맥락과 전승의 세 가지 단계 및 향유의식에 관한 규명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설인귀와 관련된 한국 고·당 전쟁문학의 향유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 속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과제, 즉 중국 인물인 설인귀를 주인공으로 한 한국 고·당 전쟁문학이 오랜 기간 동안 널리 향유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 II. 설인귀 전설 자료의 존재 양상

경기도 파주 일대에 지역전설로서 전승되고 설인귀 전설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백포소장 설인귀」,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동두천설화2] 생연2동 한약방(1999. 5. 21), 조희웅, 조홍욱, 노영근, 박인희 조사. 이윤희, 남·76, 조희웅 외, 박이정, 2001, 301~303쪽.
- (2) 「설인귀 전설」,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적성면설화5] 율포리 노인정(1999. 2. 9), 조홍욱, 박인희, 조재현 조사. 조팽기, 남·65, 조희웅 외, 2001, 박이정, 542~543쪽.
- (3) 「설인귀 이야기」, 『경기북부구전자료집(2)』, [화현면설화10] 화현3리(영신) 노인정(2000. 1. 18), 조홍욱, 박인희, 조재현 조사. 최재수, 남·66, 조희웅 외, 박이정, 2001, 502~507쪽.
- (4) 「설윤기 전설」, 제보자: 김정홍(남, 70세,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154-8), 조사지: 제보자의 집, 경기도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nt.or.kr/resources/river>, 제4장 임진강 유역의 민속문화, 제7절 구비전승, 508~509쪽.
- (5) 「마지리(馬智里)」, 『지명유래집』, 경기도 문화공보담당관실편, 1987.
- (6) 「무건리(武建里)」, 『지명유래집』, 경기도 문화공보담당관실편, 1987.

- (7) 「설마리(雪馬里)」, 『지명유래집』, 경기도 문화공보담당관실편, 1987.
- (8) 「설인귀비가 감악산으로 옮겨간 까닭(1)」,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동두천설화1] 생연2동 한약방(1999. 5. 21), 조희웅, 조홍욱, 노영근, 박인희 조사. 이윤희, 남·76, 조희웅 외, 박이정, 299~301쪽.
- (9) 「설인귀비가 감악산으로 옮겨진 까닭(2)」,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동두천설화13] 생연2동 한약방(1999. 5. 21), 조희웅, 조홍욱, 노영근, 박인희 조사. 홍성연, 남·69, 조희웅 외, 박이정, 2001, 316~318쪽.
- (10) 「이사 간 설인귀 비」,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적성면 설화3] 어유지리 노인정(1999. 8. 9), 조홍욱, 박인희, 조재현 조사. 정규운, 남·84, 조희웅 외, 2001, 박이정, 540~541쪽
- (11) 「영험한 설인귀비」,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적성면설화4] 어유지리 노인정(1999. 8. 9), 조홍욱, 박인희, 조재현 조사. 정규운, 남·84, 조희웅 외, 2001, 박이정, 541~542쪽.

설인귀 전설에는 세 가지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인물 전설이고, 두 번째는 지명유래 전설이며, 세 번째는 풍속신앙 전설이다. 이 세 가지 하위 유형에 따라 위에 제시한 설인귀 전설 자료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인물 전설 : (1), (2), (3), (4)
- ② 지명유래 전설 : (5), (6), (7)
- ③ 풍속신앙 전설 : (8), (9), (10), (11)

중국 당나라의 장수인 설인귀가 한국,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 파주 일대를 신앙 권역으로 하는 풍속신앙 전설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양상을 설명하는 전설 자료가 바로 ③의 유형이다.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설인귀가 이처럼 우리나라 경기도 일대에 특화된 풍속신앙의 주인공이 된 맥락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국면은 조선시대 이전에 존재한 한·중의 관계 속에서 설인귀라는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차지하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한국 내부의 고대사 전개 양상과 설인귀라는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맺고 있는 관계망이다. 세 번째는 경기도 파주 일대의 지역사의 전개 양상과 설인귀라는 중

국의 역사적 인물 사이의 관계이다. 본 연구는 일단 경기도 파주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서사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 후에 이러한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이 경기도 파주의 지역전설로서 존재하는 그 역사적 변동 단계 및 향유의식을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 III.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금기구조와 서사구조적 특징

파주 일대에 현전하는 설인귀 전설의 절반 이상은 감악산(紺岳山)의 설인귀비와 관련된 풍속신앙 전설, 즉 설인귀비 유래담으로 존재한다. 감악산 정상에 있는 감악산사(紺岳山祠)와 감악산비(紺岳山碑)의 풍속신앙 유래를 설인귀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유형이다. 사당이나 산사, 비석이나 탑, 공물 등의 영험은 신격에 대한 신앙을 전이한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설인귀비 유래담으로 되어 있는 풍속 전설은 곧 설인귀라는 인격신에 대한 신앙 전설의 한 대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감악산은 파주 일대의 주산으로 그 토착 민속 신앙의 연원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그 성립 및 형성 과정의 역사적인 실체를 구체적으로 소구하기란 어렵다. 반면 이 감악산 신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감악산사, 감악산비, 설인귀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감악산 신앙과 결합하는 시점은 명확한 역사적 사건과 함께 소구해 낼 수 있다. 설인귀라는 역사적 인물이 파생한 설인귀 전설이 감악산 신앙과 결합하여 설인귀비 풍속신앙 전설로 성립된 형성 과정은 역사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실체로서의 설인귀비 풍속신앙 전설의 형성 및 해체 과정 속에는 고·당 전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당나라, 신라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내재해 있다.

풍속신앙 전설로서의 설인귀 전설의 서사구조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제향의 요구와 징치의 패턴이다. 제의와 희생공양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에 징벌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접촉 금기와 징벌의 패턴이다. 신격의 신체(神體)와 동격으로 인식되는 사당, 비석, 공물 등에 무단으로 손을 댈 때 인간을 징치하는 풍속신앙 전설의 전형적인 유형구조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 패턴 속에는 모두 신격이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정하게

제한하는 전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설인귀 전설은 종교의 관념적인 차원에서 현실의 역사적인 차원으로 재맥락화 된다. 즉, 대외적으로는 고·당 전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당나라, 신라의 역학관계와 대내적으로는 한반도 내부의 왕조 교체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치·행정·종교적인 지배구조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변이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주군 일대에서 현재 전승되는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대다수는 제향요구와 관련된 금기의 패턴을 보여준다.

[자료 1] ㉔ 거 설인귀비가 어디에 서 있냐면은 저 설모치인가에 있었대요 (중략) 장수가 말을 몰고 지나가는데 그 비를 지나가려면 어느 장수든지 말을 내려서 걸어가는데, 이 장수는 채찍질하면서 지나가는데 거기서 말굽이 척 달라붙었다는 거야. ① 말이 뛰지를 못하고 그래 칼로 다 말을 목을 뽑아다 뿌리고 간 거예요. ㉕ 그 비가 옥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거 뭐 노인네의 얘기지 뭐. 그래서 그 비가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못 되겠다 아주 멀리 이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거 감악산으로 올라갔다. 감악산 꼭대기 상산봉우리에 있습니다. 그 비가, 설인귀비라고요. 그런데 이 감악산 일대에 삼개 군 옥 개면이 있어요. ② 거 면에 소를 전부 끌어 설량은 밤에 신령이 끌어 설량은 그 소 힘으로 설인귀비가 저 설모치에 있던 게 그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을 빼서, 소의 혼을 빼서 그 소 힘으로 올라간 거예요.<sup>3)</sup>

[자료 1]은 감악산의 설인귀비 유래담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희화화 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박대를 받은 끝에 원래 있던 설모치에서 감악산으로 쫓겨나거나 하는 불쌍한 신세로 나타나며, 부정적인 사귀(邪鬼)로 취급 받는 설인귀비의 양상 어느 구석을 보아도 당당한 신격으로서의 위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치가 않다. 희화화 되고 부정화 되어 있는 형상을 뒤집어 보면 인격신으로서의 설인귀의 권능과 관련 제향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료 1]에서 신격을 희화화·부정화 하는 방식을 통해 거꾸로 변이 이전에 존재한 설인귀 신앙 전설의 원형적인 내용을 추출해 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료 1]에 나타나는 서사의 골조는 설인귀비 유래 전설에 해당하는 여타의 다른 텍스트 속에

3) 조희웅(외), 『경기북부구전자료집(1)』(박이정, 2001), 540~541쪽: 「이사 간 설인귀 비」, [적성면 설화3] 어유지리 노인정(1999. 8. 9), 조홍욱, 박인희, 조재현 조사. 정규운, 남·84.

서도 반복<sup>4)</sup>되고 있는데, 이는 설인귀 신앙을 의도적으로 희화화·부정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원형적인 신성관념이 강성했다는 반증처럼 보인다. ‘㉔제향 요구와 인간의 거부-㉕인간의 위해를 피한 감악산으로 이동’으로 정리되는 [자료 1]의 서사구조를 통해 이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㉔단락은 설인귀비가 표시하는 설인귀 신앙의 권역을 지나가는 인간에게 해당 신격이 제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하여 인간에게 작해를 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신당이나 성황당 앞을 지나가는 인간이 해당 신격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발굽이 땅에 붙어버렸으나 제향을 바치자 겨우 떠날 수 있었다는 모티프는 특정 신격의 좌절이나 권능의 재확인 과정 속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설인귀비가 원래 설모치란 산 정상에 있었다는 설정이다. 여기서는 설인귀 신앙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는 설인귀 신앙이 산악신앙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설인귀 신앙이 설모치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설인귀가 설모치 일대에서 산신으로 좌절해 있으면서 제향을 받은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대부분의 전설 자료 속에서 설인귀 신앙은 감악산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원래는 감악산뿐만 아니라 설모치와 같은 과주 일대의 다른 산악에서도 설인귀 신앙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㉕-① 부분은 설인귀신의 권능 행사가 인간에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도리어 위해를 당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말의 목을 쳐서 생피를 내어 특정한 대상에게 바르는 행위는 축사(逐邪)의 민속에 속한다. 민속에서 신(神)으로 인식되느냐 귀(鬼)로 인식되느냐는 해당 대상에 대한 신성관념이 유지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갈린다. 설인귀비가 축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설인귀에 대한 신성관념이 이미 해체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㉕단락은 인간의 박해를 견디다 못한 설인귀비가 설모치에서 감악산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로 신성관념 해체의 결과를 희화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

4) 다음의 자료 속에서도 동일한 서사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조희웅(외), 앞의 책, 316~318쪽: 「설인귀비가 감악산으로 옮겨진 까닭(2)」[동두천전설화13] 생연2동 한약방(1999. 5. 21), 조희웅, 조홍욱, 노영근, 박인희 조사. 홍성연, 남·69.

5) 설모치라는 산 이름 자체가 설인귀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설모치의 ‘설’은 설인귀의 인명을 가리키며, ‘모치’는 ‘마치’의 동음어로 산 정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설모치는 설인귀산이라는 뜻으로 설인귀를 산신으로 모신 산이라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까지 주목할 것은 설인귀 신앙권역의 변동 양상이다. 설인귀비가 설모치에서 감악산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설인귀 신앙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설인귀 신앙이 애초에 설모치와 감악산에 두루 존재했는데, 설모치에서는 신성관념이 해체됨에 따라 퇴조하고 그 신앙권역이 감악산 일대로 축소되었을 가능성이다. 여기에는 다음에서 살펴볼 [자료 2]의 마차산까지 설인귀 신앙의 초기 전승 권역에 포함된다. 자료의 보충 여부에 따라서 설인귀 신앙의 초기 전승 권역은 파주 일대의 다른 산악 지역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설인귀 신앙이 애초에 설모치를 중심으로 형성·전승되었는데, 특정한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전승의 중심지가 설모치에서 감악산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설인귀 신앙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역사적 상황 변동을 전제해야 한다. 설모치가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설인귀와의 관련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비해 감악산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 두 번째 가설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현재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두 가지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설모치 주위 지역민들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사실상 감악산으로 쫓겨났다는 [자료 1]의 에피소드가 감악산이 설인귀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음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설인귀비가 이동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 소의 영혼을 빼앗아서 이용했다는 설정이다. 살아있는 생물의 영혼을 탈취하여 마음대로 부리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다. 그런데 설인귀비가 영혼을 탈취한 생물은 다름 아니라 인간이 농경을 하여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소다. 설인귀비가 소의 영혼을 탈취하여 부렸다는 것은 신성성을 부정당한 채 인간에게 쫓겨나는 와중에서도 지역민의 생활을 좌지우지 했던 권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추적하면 신성관념이 해체되기 이전에 유지되고 있던 설인귀의 권능이 농경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생산 활동과 긴밀히 관련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격으로서의 설인귀의 직능이 지닌 정체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인 것으로 보인다. 하필 설인귀비가 자기 몸의 이동을 위해 소의 영혼의 힘을 탈취하여 그 노동력을 이용했다는 것은 설인귀가 원래 파주 지역의 농업 생산과 관련된 마을신 신앙과 결합되어 존재했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sup>6)</sup> 설인귀 인물전설에서 소를 몰아 밭을 가는 장면이 빠짐없이 등장하면서 서사구조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에피소드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



락으로 해석된다. 원래 설인귀 풍속신앙은 소를 공양하는 제의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sup>7)</sup> 소를 매개로 한 농경제는 곧 풍요제의 다른 이름이다. 농경의 풍요는 다시 마을의 평안과 안녕에 대한 기원제의로 환원된다. 이쯤에서 신격으로서의 설인귀가 지녔던 직능의 정체가 해명될 수 있다. 설인귀는 설모치와 같은 파주 일대의 특정한 혹은 일부의 산악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의 생산과 관련된 농경신이자 마을의 안녕을 보장해주는 수호신으로 제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접촉 금기와 징벌의 패턴과 관련한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은 제향과 관련된 금기의 패턴과 비교할 때 굴절되지 않고 거의 원형 그대로 전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료 2] 거 군인이 쓰러뜨려가지고 대위가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㉔ 그 비가 25사단 연대장이 그 비가 귀찮으면은 이리 굴러라, 그랬거든. 그래 쓰러뜨렸단 말이야. ㉕ 그러자 한 일주일 있다가 연금 권총대위가 있는데 권총으로다가 사격이 있어서 쏘는데 이게 총알이 안 나가더라는 거야, 이게. 그럼 왜 안 나가는 거야 하나가 자기가 맞아 죽은 거야. 그냥. 그리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호랑이가 나와서 비를 굴러놓고는 사병들이 거기를 얼씬도 못하는 거야. ㉖ 그러던 찰나에 그렇게 되니깐 그때 사단장이 와서 묻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있는 거냐고. 거 난 얘기듣기로는 감악산에 있는 비를 굴렀다면. 그제 어느 장군 비인테 그걸 내려 굴러.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 다시 세워놓고 고사를 지내. 그래가지고서 사단장이 큰 돼지 잡고 다시 그걸 아주 잘 해놨어요(하락).<sup>9)</sup>

- 
- 6) 비를 부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지는 이무기가 소의 혼을 탈취하는 신성 권능을 발휘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이 역시 소의 노동력을 관장하는 능력이 농경의 풍요 기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관념의 소산으로 보인다. 농업 생산의 확대를 기원하는 풍요제에서 소의 탈을 쓴 사람들의 군무가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7) 비근한 예로 강원도 부평 지역에서는 사당 여신의 작폐를 무마하기 위해 소를 바치기도 했다. 설인귀에 대한 제의에서도 소를 희생으로 바치는 제향이 중요한 한 단계로 설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8)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신격이 인간에게 박해를 당하는 희화화와 부정화의 상황은 그 신성관념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지 못해서 제향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만약 믿는 사람만 있다면 그 권능은 여전히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인귀비가 설모치 주위에 있는 소들의 혼을 빼서 감악산으로 이동하는 신이한 이적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전통적인 신앙 관습에 의한 것이다.
  - 9) 조희웅(외), 앞의 책, 541~542쪽: 「영험한 설인귀비」, [적성면설화4] 어유지리 노인정(1999. 8. 9), 조홍욱, 박인희, 조재현 조사. 정규운, 남·84.

[자료 2]는 [자료 1]과 달리 설인귀비를 중심으로 한 신성관념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설인귀비가 행하는 행동양태의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텍스트의 서술방식 역시 희화화 되는 국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설인귀비에 빙의한 설인귀는 자신의 신성성을 인정하는 향유층과 그 권능이 통용되는 공간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신격으로 나타난다. [자료 2]는 설인귀비의 권능과 관련한 금기를 위반한 당사자가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자라는 점에서는 [자료 1]과 동일한 인물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설인귀비와 이 캐릭터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된다. 설인귀비에 대한 이주자의 인식양상과 행동방식에도 세부적인 차이가 확인되며, 이 이주자에 대한 설인귀비의 대응방식은 확연히 다른 국면을 보여준다. ‘㉞접촉 금기의 위반—㉟징치—㊱제향과 해원’로 정리되는 [자료 2]의 서사구조를 통해 이러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㉞에서 설인귀비의 접촉 금기를 위반한 대위는 6·25를 배경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파주에 들어온 군인 중의 한 명으로, 설인귀비에 대한 파주 지역의 전통적인 신성관념에 관한 사전지식이 부재한 인물이다. 설인귀 신앙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 일대로 한정된 지리적 한계성을 갖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이입해 들어온 대위는 파주 지역민이라면 생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성관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이다. 따라서 감악산 일대에서 유지되고 있던 설인귀비에 대한 신성관념이 외지인인 대위가 가지고 들어온 일상적인 사고방식을 압도했다는 것이 갈등의 핵심이 된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신성관념의 변동양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료 2]의 이야기가 [자료 1]의 내용에 후속편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자료 1]에서는 설모치 지역에서 설인귀 신앙이 퇴조함에 따라 그 전승권역이 감악산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거꾸로 얘기하면 설모치에서는 설인귀 신앙이 해체되었지만 감악산에서는 여전히 설인귀 신앙이 유지되었다는 말이 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자료 2]는 [자료 1]에서 감악산으로 이사한 설인귀비의 후일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㉟에서는 접촉 금기를 위반한 대위가 설인귀비에 의해 징치를 당하는 양상이 나타나 있다. 자신이 쓴 총알에 자기가 맞아 죽는 양상은 신격의 신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접촉 금기를 어긴 결과로, 민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동티가 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악산에서는 설인귀 신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이

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그 권능에 도전한 인간이 금기 위반의 대가를 받은 것이다. 설인귀비가 금기의 제시와 징치라는 신성관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 2]는 굴절되기 이전에 존재한 설인귀 신앙의 한 원형적인 서사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을 죽이는 해악을 끼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설인귀비의 금기 제시와 징벌의 과정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하지 않는 것도 [자료 2]의 서술시각이 설인귀 신앙의 신성관념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㉔는 금기 위반에 대해 설인귀비가 가한 징치의 위력을 경험한 장군이 제향을 올림으로써 자기 집단에 가해진 신격의 분노를 해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돼지는 희생 공물에 해당하며, 장군은 동티의 원인과 그 해원의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군인 집단 속에서 유일하게 본질을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무당이나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두고 싶은 점은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 속에서 금기를 저촉하는 인간이 하나 같이 외지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파주 지역이 한반도 내부에서 지니는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속에서 설인귀비 주변 지역은 과거를 보러가기 위한 교통의 요로 혹은 군사 관계 이동기착지로 나타난다.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파주는 지리적으로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하여, 동쪽 및 북동쪽으로는 양주군과 연천군, 서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군, 남쪽은 고양시, 북서쪽으로는 군사분계선에 접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일찍이 고대국가 시기부터 그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삼국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각각 송도(松都)의 동교(東郊), 한양의 서교(西郊)로서 교통의 요지 및 수도 방비의 군사요지로 자리매김하여 왔다.<sup>10)</sup> 이 점에서 설인귀는 감악산처럼 사당과 비석의 탑신이 위치해 있는 산악만이 아니라 그 일대의 교통, 군사 권역을 두루 관장하는 신격으로 제향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를 교통의 요로로 삼은 외지인과 이주자들이 자신들에게 생경한 설인귀비의 신성관념과 갈등을 빚는 이야기 형태가 형성된 것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10) 『파주군지』상(파주군, 1995), 3쪽.

#### IV.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 전승의 역사적 세 국면과 향유의식

##### 1. 설인귀 풍속신앙 전승의 역사적 변동 단계와 그 맥락

현전하는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은 원형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굴절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설인귀 신앙의 변이 및 전승권역의 변동 과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설인귀 신앙의 해체 혹은 변이는 지역의 토착 민속에 대한 국가의 역사적인 개입 여부와 관련이 있다. 대외적인 전략 혹은 지방행정 강화, 지역 토착 민속에 대한 교화 등 국가 시스템 차원과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는 것이다. 텍스트 속에 나타난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역사적인 변이 과정은 세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설인귀 신앙이 파주 지역의 전통 토착 신앙인 감악산 신앙과 결합하는 단계이다. 설인귀가 감악산신으로 좌정하면서 제향된 시기는 통일신라로 보인다.

[자료 3] 감악(紺岳)은 신라 때부터 소사(小祀)를 지내는 곳으로 삼았다. 산 위에 사우(祠宇)가 있어 봄·가을로 향과 축문을 내려 제사를 행하였다.<sup>11)</sup>

[자료 4] 민간에 전하는 말로 신라 사람이 당나라 장수 설인귀(薛仁貴)를 제사하여 산신으로 삼았다고 한다.<sup>12)</sup>

파주군의 산악신앙의 한 형태로 존재했던 설인귀 신앙이 감악산신앙으로 재편된 계기는 파주를 가장 오래 점유했던 고구려의 영향을 몰아내고 신라의 영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중앙 집권적인 행정체계 정립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감악산을 중심으로 파주군 일대의 산악신앙과 제의를 신라의 공식적인 제의체계 속에 편입함으로써 파주군에 대한 행정권을 확인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영향력 확대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삼국시대에 파주지역을 최초로 차지했던 것은 백제였으나 392년에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관미성(關彌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것을 필두로 교하지역이 고구려에 넘어가게 되었고, 475년에 현재의 파주군 지역 전체가 고구려의 영토로 귀속되었다.<sup>13)</sup> 진흥왕대(540~576년)에 신라가 고구려 세력을 한강유

11) 『고려사』 권56, 地理志, 積城條

12) 『고려사』 권56, 地理志, 積城條

13) 『大東地志』 卷3, 坡州 沿革條

역에서 몰아내고 557년에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두면서 이 일대는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각축장이 되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교하 지역을 놓고 패권을 다투는 반면, 신라와 고구려는 적성 지역을 중심으로 대립하였다.<sup>14)</sup> 삼국을 통일하고 당군까지 몰아낸 신라는 757년(경덕왕16)에 전국의 주요지역에 5소경을 설치하고, 전국을 9주로 재편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파주 지역의 5개현은 646년에 설치된 한산주(漢山州)에 소속되었다.<sup>15)</sup> 신라는 명실공히 한반도 통일국가의 위상을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통해 과시하고자 했다. 종래의 백제나 고구려의 영유권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의 명칭을 바꿈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일신라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지금의 파주 지역에는 파평현, 봉성현, 중성현, 교하군, 장단현이 위치하게 되었다.<sup>16)</sup> 이러한 파주군 일대의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토착 민속신앙들이 정리되어 감악사 신사로 통합되고, 다시 신라의 국가제의 체제에 편입되는 신앙체계 재편이 이루어졌다. 신앙체계의 재편은 각 집단의 상이(相異)한 신화와 의례들을 중앙의 왕권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7세기 통일전쟁을 치르고 나서 더 가속화되었다. 확대된 영토와 다양한 인민을 하나의 원리로 묶어내는 작업이 더 절실해진 것이다.<sup>17)</sup>

본격적으로 경덕왕 대에 전국의 명산대천을 사전(祀典)에 편입하였는데, 경주 부근의 산천을 대사(大祀)로, 전국의 오악(五岳)·사진(四鎮)·사해(四海)·사독(四瀆)을 중사(中祀)로, 지방의 주요한 산 24곳을 소사(小祀)로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14) 603년(진평왕25)에 고구려는 말갈족과 함께 칠중성(적성지역)을 함공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 고구려는 638년(선덕여왕7)에 또다시 침공했으나 신라의 대장군 알천(闕川)의 활약으로 퇴각하였고(『大東地志』 卷3, 積城 典故條), 660년(무열왕7)에는 초반에 승전하여 칠중성의 현령 필부(匹夫)를 전사시키는 등 위력을 떨쳤으나(『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積城縣 名宦條), 필부의 죽음에 자극된 도성민의 저항과 왕이 특과한 군대에 쫓겨 우봉고현(牛峰古縣)에서 대패하고 퇴각했다(『大東地志』 卷3, 積城 典故條). 이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고구려를 향해 출발한 지역이 칠중성이었고, 662년에 평양 인근에서 식량이 떨어진 채 고립되어 있던 당군을 구조하기 위해 김유신 등이 건너간 지역이 칠중성이었으며, 고구려 멸망 후 대당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칠중성이었다(『京畿誌』 3책, 積城縣誌, 宦跡條 및 古跡條).

15) 『增補文獻備考』 卷15, 여지고3, 군현연혁1, 신라조.

1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1, 파주목·적성현·교하군 건치연혁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2, 장단도호부 건치연혁조.

17) 이에 관해서는 나희라, 「신라 국가제사의 체계와 성격」, 『한국사연구』, 118(2002), 113~134쪽을 참조하기 바람.

파주 적성면 감악산(甘岳山)도 소사로 지정되었다.<sup>18)</sup> [자료 3], [자료 4]는 바로 이 과정을 나타낸다. 그런데 통일신라의 국가제의로 편입되기 이전에 파주의 지역 토착 신앙의 일부로 존재한 설인귀 제의는 산신제이자 마을 당제의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사가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국가제의임에 반해, 소사는 지방 군현민의 길흉화복을 주재하는 제의로서 지방관이 주재하였고, 기우제적 성격이 강했다. 소사는 본질적으로 고대 토착신앙인 산신에 대한 제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산신은 산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 마을 공동체의 모든 길흉화복을 주재하며 마을 공동체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었다. 마을 문제 전반에 관계하는 전지전능한 신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농업신이라 할 수 있었다.<sup>19)</sup> 소사가 기우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도 전통 사회 속에서는 농업생산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감악산신은 애초에 파주 지역 주산의 산악신이자 해당 지역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담당하는 수호신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감악산 신앙은 통일신라 정부의 국가제의로 재편되고, 그것이 설인귀라는 역사적인 인물과 결합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진평왕의 파주 일대 점유와 함께 이루어진 변이 단계이다. 진평왕은 임진강 유역을 정복한 후에 철원 고석정(孤石亭)의 진평왕비(眞平王碑)와 함께 감악산 정상에도 기념비를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0)</sup> 감악산에 진평왕비를 세운 이유는 이곳이 고구려와 치열한 영유권 다툼을 벌인 격전지였기 때문이다. 신라가 진흥왕대에 비약적인 영토 확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를 비롯한 임진강 유역은 여전히 고구려의 소유였다. 파주 일대가 신라의 판도에 들어온 것은 김유신의 활약으로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칠중성을 획득한 진평왕 51년으로 비정되고 있다.<sup>21)</sup> 감악산비는 전통적으로 고구려의 판도 속에 있었던 파주를 획득한 신라가 대내외적으로 이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국력을 자랑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립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악산의 전통적인 토착 민속제의의 형식을 빌려 국가의 안녕과 복록을 기원하는 공식적인 국가제의를 영토 확장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했을

18) 『파주군지』, 185~186쪽을 참조하기 바람.

19) 서영대, 「한국고대 신 관념의 사회적 의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1), 66~79쪽.

20) 김윤우, 앞의 논문, 43~44쪽.

21) 위의 논문, 43~44쪽.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 감악산 제의는 파주 지역의 풍요와 안녕을 비는 마을 제의인 동시에 호국의 기원을 올리는 국가 제의의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까지도 감악산사(甘岳山祠)을 일명 왕신사(王神祠)<sup>22)</sup>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삼국시대의 주변부에 위치했던 파주 지역이 왕과 관련된 기념물의 건립이라는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업을 겪으면서 이 특별한 경험을 반영한 예로 파악된다. 감악산비를 일명 빗돌대왕비로 불렀다는 기록<sup>23)</sup>도 소외되어 있던 주변부 지역인 파주가 진평왕비를 계기로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배려의 세례를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시점의 감악산 신앙의 주된 성향은 여전히 마을 제의였을 것이나, 감악산 제의가 통일신라의 소사로 편입되기 이전 중간 단계로 이미 이 시점에서 국가제의의 구조를 일부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설인귀와 결합하는 단계이다. 현전하는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대다수는 설인귀비가 원래 설모치나 마차산과 같은 산에 위치해 있다가 감악산으로 옮겨갔다고 하여 전승권역의 이동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파주 일대에 산재했던 설인귀 풍속신앙이 감악산 지역으로만 축소된 전승권역의 축소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역사적·정치적 계기에 의해 주된 전승권역이 감악산으로 이동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감악산이 의도적으로 설인귀 신앙의 본산지로 부각되면서 파주 일대에 산재한 원래의 설인귀 풍속신앙이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영유권이었던 파주를 빼앗아서 신라의 영토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파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제의를 국가제의로 편입함으로써 종교적인 차원과 정치·행정적인 절차를 결합시켜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른 하나는 파주 지역 민중 출신 중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한 인물인 설인귀를 국가제의로 편입된 감악산 소사의 주신으로 제향 함으로써 설인귀에 대한 지역민의 신앙 관념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이를 매개로 파주 지역민의 신앙체계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새로 편입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 해

22) 『파주군지』, 184쪽.

23) 『파주군지』, 184쪽.

당 지역 출신 중 가장 명성이 있는 인물에게 관작이나 식읍, 제향을 내리는 것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접지배 방식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파주 점령과 함께 진행된 이러한 감악산 설인귀 신앙의 형성 과정은 통일신라시대의 특정한 한 시기에도 똑같이 반복되었음이 확인된다. 바로 발해의 성립과 통일신라의 대치 과정에서 발해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인 차원이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적극 표방하고 그 유민들에 의해 건국된 발해는 한·중·일 삼각무역을 독점적으로 증대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여 통일신라를 위협했다.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철수함에 따라 통일신라는 발해와 직접 국경을 접하며 삼한의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장군인 설인귀를 고구려의 한반도 남부 고토인 파주 지역 주산인 감악산사의 주신으로 내세움으로써 고구려를 승계한 발해를 정신적으로 제압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sup>24)</sup> 말하자면 설인귀는 발해의 남침 위협에 시달린 통일신라 정부가 내세운 신앙 차원의 대리전쟁의 주체였던 셈이다.

제2단계는 감악산 신앙이 설인귀 신앙과 분리되는 단계이다. 고려조부터 감악산신과 역사적 실체로서의 설인귀가 본격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조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뚜렷이 밝히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감악산사와 감악산신이 바로 설인귀 신사와 설인귀신에 대응된다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고·당 전쟁기와 나·당 전쟁기에 실존한 역사적 실체로서의 설인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그저 과거 신라 때의 일로 소급되어 기록되고 있을 뿐, 고려 당대의 신격으로 현행되는 제향의 대상으로 기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고려조에 와서 설인귀 신앙과 감악산 신앙의 결합체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료 5] 현종(顯宗) 2년에 거란병이 장단악(長湍岳)에 이르매 신사에 기치와 토마(土馬)가 있는 것 같아 거란병이 두려워하며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사우)의 수리를 명하여 신사에 보답하였다.<sup>25)</sup>

[자료6] 현종 2년 2월에 거란병이 장단에 이르렀을 때 눈보라가 사납게 일어

24) 이에 관해서는 정우영, 앞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25) 『고려사』 권56, 地理志, 積城條.



나 감악산사(紺岳神祀)에 기치와 토마가 있는 것 같았다. 거란병이 두려워하여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소사(所司)로 하여금 이에 보답하는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sup>26)</sup>

감악 산신에 대한 신앙은 고려 초·중기까지 매우 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 5]에서는 현종 때 감악산신이 거란병을 물리쳤다고 했으며, [자료 6]은 충렬왕이 원나라 황제를 도와 내안(乃顔)을 토벌하려고 할 때 감악산신의 둘째 아들을 도만호(都萬戶)로 삼아 음조하기를 바랐다는 기사이다. 도만호란 원나라의 다루가치로서 감악산신에 대한 신앙이 파주 지역민은 물론 고려국민에게 강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벼슬을 내리는 상징적인 행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기록에서는 제향의 대상을 설인귀라고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감악산사라고만 했지 설인귀 신사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신라 때 민간에서 설인귀를 모셨다고만 했지 고려 때에도 그 제향의 대상이 설인귀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려조에 와서 감악산 신앙이 설인귀와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고려조로 왕조가 교체됨에 따라 통일신라의 정치적인 판도를 상징하는 설인귀와 감악산 신앙이 분리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그 최초의 계기는 통일신라 말엽인 898년(효공왕2)에 고구려 계승 의식을 적극 표방한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파주를 점유한 사건이다.<sup>27)</sup> 궁예는 898년에 한주 소속의 양주 등 30여 성을 탈취하였고 900년에 광주 등을 획득하였는데, 이때부터 파주 지역은 신라의 정치적·문화적 영향권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5], [자료 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감악산사가 특히 고려조에 와서 그 신이한 영험을 만방에 떨치게 되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감악산사를 상징으로 하는 파주의 민속신앙이 지역적인 특수성을 넘어 한반도 전역에 통용되는 일반성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삼국시대로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역사의 주변부로 존재했던 파주 지역이 중앙무대에서 일정한 세력을 확보하게 된 지역사의 패러다임 변화를 암시한다. 이는 나말여초에 이르러 비로소 중앙무대에 세력을 과시하는 파주 지역의 호족세력이 등장한 사실과도 관련지어 생

26) 『고려사』 권63, 禮志, 雜祀條.

27) 『三國史記』 卷50, 列傳10, 궁예조; 『중보문헌비고』, 권14, 여지도2, 역대국계2, 태봉국조.

각해 볼 수도 있다.<sup>28)</sup>

과주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정치적 변동은 [자료 5], [자료 6]에서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 현종조가 이러한 감악산 신앙의 세력 과시의 시기로 지목되었던 역사적인 배경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종조는 고려의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 시스템을 정비한 시기이다. 현종 9년(1018년)에 전국을 4대 도호부 8목 56주군 28진 20현령 체제로 개편하였고, 장단 현령이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兎山)·임강(臨江)·적성(積城)·과평(坡平)·마전(麻田)의 7현을 관할하면서 직접 상서도성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를 경기(京畿)라고 불렀다.<sup>29)</sup> 그러나 현종조에 완비된 고려의 지방 통치 시스템은 지극히 불안정한 것이어서 각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했다. 고려시대에는 전국에 약 500개의 군현이 존재했지만 모든 군현에 외관(外官)이 파견된 것이 아니었다.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에 의하면 고려 전기에는 수령이 파견된 주현이 130개였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속현이 373개나 되었다. 이들 속현들은 수령이 배치된 주현에 예속되어 중앙의 간접지배를 받는 행정체계를 이루었다. 과주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장단현에만 외관이 파견되었을 뿐, 나머지 과평현과 적성현은 장단현의 속현으로, 교하군과 봉성군은 양주의 속현으로 존재하면서 중앙의 직접지배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sup>30)</sup> 이는 어떤 왕조보다도 강성했던 고려의 토호세력의 지역 통제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 5], [자료 6]에서 특별히 현종조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이 당시에 지방통치 제도가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주 지역이 그 통제력으로부터 벗어나 해당 지역 토호와 권문세족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었으며, 오히려 출신 호족들의 권력이 각 지역의 분권적인 세력 구도 속에서도 과주 지역의 지분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기반이 되었던 사정을 감악신사의 신앙적 과급력을 빌어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3단계는 감악산 신앙이 유교적 합리주의와 대립하는 단계로 고려 충선왕조가 그 시작이다. 설인귀 신앙과 분리되어 토착민속화 한 감악산사 신앙은 고려 충선왕

28) 고려 전기에는 서원(瑞原) 염씨(廉氏), 과평(坡平) 윤씨(尹氏), 장단(長湍) 한씨(韓氏)가 문벌귀족으로 성장하였고, 무신집권기에는 임진(臨津) 김씨(金氏), 몽고 압제기에는 서원 염씨, 교하(交河) 노씨(盧氏)가 두각을 나타냈다(『과주군지』, 190쪽).

29) 『世宗實錄地理志』, 경기조.

30) 변태섭, 「고려전기의 외관제」, 『고려정치제도사연구』(일조각, 1971), 116~147쪽.

조에 와서 정부의 주도로 배격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확대와 이에 따른 토착신앙의 배척의 과정을 배경으로 한다. 새로운 이념을 유포하기 위해 사회체제 속에서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던 기존의 이념을 소거하는 방식이다.

[자료 7] 충선왕 3년 4월, 감악산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때 귀신을 숭상하여 공경사서(公卿土庶)가 모두 친히 감악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간혹 장단을 지나가다가 익사하는 자가 있었다. 이에 헌사(憲司)가 상소하여 이를 금지시킨 것이다.<sup>31)</sup>

[자료 7]에서 감악산사는 설인귀 신앙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 지역의 공경대부, 평민은 무문하고 타지역의 사람들까지도 그 신이한 감응을 믿어 제사를 지내러 올 정도로 토착신앙으로서의 감악산사의 위력은 오히려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토착신앙으로서 이렇게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감악산 신앙의 위력이 정부의 주도로 공식적인 이념으로서의 세력판도를 확장하고자 했던 유교 이데올로기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다는 데 있다. [자료 7]에서 감악산사 신앙은 유교적 이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당대의 지배층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던 토착신앙의 표상으로 나타난다. 감악산사는 선량한 백성들을 현혹하는 요사한 존재로 형상화 되어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끼친 작폐를 특히 강조하는 시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같은 고려시대의 자료인 [자료 5], [자료 6]에서 감악산사 신앙을 서술하는 방식과도 괴리되는 것으로 다분히 유교 이념에 입각한 지배체제의 공식화된 폄하 의도가 노출되어 있다. [자료 7]에서 하필 충선왕조가 유교적인 지배질서와 감악산사의 토착 민속신앙의 대립이 본격화된 시기로 나타나는 이유는 충선왕이 주자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왕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sup>32)</sup>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선왕은 왕을 정점으로 하여 신민이 수직적으로 복속하며 이를 충·효·신의 유교적 교화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실현하고 자 한 주자 성리학을, 지방의 토착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왕권을 위협했던 권문세족을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로 파악하고

31) 『고려사』 권58, 刑法志, 禁令條

32) 이에 관해서는 이이화, 『역사 속의 한국불교』(역사비평사), 2002, 242쪽을 참조하기 바람.

있었다. 주자 성리학에 바탕을 둔 과거 제도를 확대하고, 당대의 거유인 이제현(李齊賢)을 앞세워 성리학적인 정치 및 지배질서 구축에 나선 것도 이러한 차원과 관련이 있다. [자료 7]에서 배격의 대상으로 지목된 감악산사는 왕비를 보유한 고려조의 대표적인 호족 세력을 배출하면서 정부의 중앙통제력과 대립했던 파주 지역 토착세력에 대한 일종의 은유 대상이다. 파주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유교 이념을 앞세운 중앙정부가 토호세력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의 대표적인 토착 민속신앙인 감악산사 신앙에 대한 공식적인 배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유교적인 정치질서를 확대하고자 한 충선왕조 지배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감악산사는 음사에 빠져있는 지방민을 교화하기 위해 퇴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감악산사에 대한 지역민의 신앙은 이러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배척에도 불구하고 파주 지역 지방민의 관습 속에서 다시금 재현되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배 권력의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도 토착 신앙의 뿌리를 발본색원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과의 연관 속에서 형성되어 깊숙이 자리한 신앙 관념을 유교적 이념에 기반 한 관가의 규제만으로는 일거에 무너뜨리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감악산사는 유교적 교화 확대를 내세운 정부의 배격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8] 권람(權擘)이 병들면서부터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송악에 기도하러 집을 다 비우고 가서 수일 동안 머물렀다. 드디어 감악에서 기도하는데, 마침 풍우가 있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감악산신은 곧 당나라 장수 설인귀이다”라 하므로, 권람이 신에게 말하기를 “신은 당나라 장수이고, 나는 일국의 제상이니, 비록 선후가 같지 않더라도 세는 서로 비슷하다. 어찌 서로 궁박하게 굴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하였다. 무당이 신어를 하는데, 성내어 말하기를, “그대가 감히 나와 서로 버티는데 돌아가면 병이 나올 것이다” 하니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sup>33)</sup>

[자료 8]은 권람이라는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를 매개로 하여 감악산의 토속 신앙과 유교 이데올로기 사이의 대립을 형상화 한 자료이다. 합리성을 존중

33) 『世宗實錄』 卷34, 10년 9월조

하는 유교적 이념과 민속신앙의 토착신격 사이에 벌어진 갈등 양상을 형상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8]에서 감악산사의 신은 유교사상으로 무장한 권람에게 굴복하여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교적인 지배이념이 차츰 확립되어 감에 따라 토착 민속 신앙을 통제하는 데 성공해 간 양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 이념을 강화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 포상을 했던 조선조에 와서 감악산 신앙이 본격적으로 퇴조하기 시작한 양상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의 확대에 따라 당대의 지배적인 이념이 교체되어 간 패러다임의 영향 아래 생겨난 변모다. 조선 초기 유교적 이념의 전도사나 다를 바 없는 권람의 등장도 이러한 차원이다. [자료 8]에서 권람은 일종의 퇴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퇴치자 권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자료의 서술시각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던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인 [자료 1]에 나타난 희화화·부정화된 감악산사 설인귀비의 모습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변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합리성과 현실성을 추구하는 지배 권력에 의해 토착신앙이 패배해 간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그러나 [자료 8]은 거꾸로 감악산사의 신앙이 파주 일대의 민속 신앙이 유교의 합리적인 관념에 의해 퇴치되어 간 조선 초기까지도 구체적인 신격으로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제향을 받으면 그들의 신앙과 관습, 사회질서에 관여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민들의 현재 의식 속에 살아있는 신앙대상인 신격은 그것과 다른 이념을 지닌 가치체계로서 새 질서를 구축, 유지하려는 관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감악산사의 신은 당대 지역민의 의식 속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신격으로서 엄연히 외경의 대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교를 국가적인 새 이념으로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역사적인 성격을 지닌 자료 속에서 감악산사의 성격이 심하게 변모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증해 준다. 사상적 변모 때문에 관념의 전환을 거치면서 그 본래적 면모를 상실하고 변이한 것이다. 권람을 필두로 한 정치적인 관념체계가 침투하면서 파주지역 토착 신앙에 대해서도 합리적·현실적인 인식 방식이 확대되었을 것이며, 그 결과 신앙 관념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감악산사는 그 연원이 가장 오래되고 그 제의와 상관한 신앙이 파주 지역민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면서 동질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끈이 되었던 것으

로 보이는 바, 파주 일대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앙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 일대의 다른 산악신앙이 상실되거나 자취를 감추는 상황에도 감악산사와 관련한 신앙은 존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설인귀비가 지역민의 배척을 피해 감악산으로 이사간다고 한 [자료 1]의 설정은 거꾸로 이러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권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토착신의 권위를 일거에 제압하는 동시에 유교이념을 단번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자료 8]의 서사구조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교에 입각한 지배이데올로기가 토착신앙을 압도했다면 [자료 8]은 토착신앙과 유교이념의 대립을 권람과 감악산 신격의 갈등으로 형상화하지 않고, 권람을 유교적 교화 실현의 영웅적인 인물로 형상화하여 감악산 신격을 일거에 물리침으로써 유교적 이념의 일방적인 승리를 강조하는 서술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자료 8]에서 유교적 교화의 확대에 따라 토착신앙으로서의 감악산 신앙이 본격적으로 퇴조하는 시대적 배경이 하필이면 조선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정은 조선조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 구축과 파주지역의 위상의 변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서사구조를 통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착신앙으로서의 감악산 신앙과 유교 이념의 전도사로서의 권람의 대결은 파주를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 체제 속에 적극 편입시키고자 하는 조선 정부의 노력과 지역 토착 세력의 대립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정부는 1414년부터 중앙관제와 지방군현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하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력을 강화해왔는데, 바로 [자료 7]에 등장하는 권람의 파주 방문 시기와 일치한다.<sup>34)</sup> 조선 초기부터 본격화된 유교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정비 과정의 일환으로 파주 지역의 토호를 제압하고 정부의 중앙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정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1]의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 속에서 토착신앙 속에서 감악산신으로 인식되었던 설인귀비의 희화화는 이처럼 토착신앙이 조선의 중앙집권적인 행정통제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적인 대결에서 패배함으로써 신앙대상으로서의 숭앙감은 박탈되었지만 그 숭앙의 흔적은 역설

34) 이 과정에서 파주 지역의 교하현은 원평군에 소속되었고, 교하현 소속의 심악은 고양현(高陽縣)에 소속되었고(『太宗實錄』卷28, 태종 14년 8월 신유조), 장단현은 임강현(臨江縣)을 합병하여 장입현(長臨縣)이 되었다가 뒤에 다시 장단현이 되었다(『世宗實錄地理志』, 경기 장단현조).

적으로 희화화된 양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모과정을 역으로 추적할 때, 설인귀 신앙이 지닌 본질적인 신성과 그 발현 양태의 역사적 변모 과정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설인귀는 생활의 풍요를 제공하는 산신 혹은 지역의 생산신으로 숭앙되었으며,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중앙집권적인 행정 체계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신성을 상실하거나 약화되어 희화화 된 것으로 보인다. 제향 대상신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해 신앙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본래적인 신성을 상실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자료 8]에서 설인귀가 다시 감악산사의 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교적 교화 확대의 전령사로서 토착신을 퇴치하는 권람이 대결하는 당사자는 감악산신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인귀신으로 구체화 되어 있다.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파주군 일대에서 해당 지역 출신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설인귀와 감악산신이 다시금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이라는 왕조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북방 여진족의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했으며 오히려 함경도나 평안도와 같은 한반도 북방 지역과 그 출신 인재를 차별한 왕조이다. 이 때문에 고려의 수도로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완전한 개성 지역에서는 이성계를 비하한 성계육 전설이 널리 전승되기도 한다. 이는 거꾸로 보면 조선 왕조의 성립이 파주군 감악산 신앙과 설인귀 전설을 분리하게 한 고려조 이래의 정치적인 강제력을 완화시킨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이 고구려의 잔재를 청산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17세기 이후로 가면 감악산신과 설인귀는 다시 분리된다. 17세기 이래 이 지역을 답사했던 허목, 유형원, 이만부 등의 기록을 보면 감악산비 옆에 설인귀 사당이 있다는 언급만이 나와 있을 뿐 감악산비와 설인귀 사당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지적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감악산 신앙과 설인귀 전설을 한 세트로 묶어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금기가 조선조 들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의 결속력이 굳건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조선조 이후 감악산신은 설인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동시에 감악산 풍속신앙 전설은 설인귀 전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유형으로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5) 김윤우, 앞의 논문, 43~44쪽.

## 2.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전승 양상에 나타난 향유의식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은 중국 당나라 때의 역사적인 인물인 설인귀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설 지형도 속에서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전설에 해당한다.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은 타국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한국의 구비전설 지형도 속에 이식된 존재를 주인공으로 삼은 전설의 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토착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전설 유형과 진배없는 하위 유형의 구성과 서사구조적인 특징을 준다는 사실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은 자국의 역사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설 유형의 존재 양상 및 내러티브의 형상화 방식에 있어서는 지극히 한국화 된, 혹은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전설과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존재 양으로 미루어볼 때, 이 전설 유형의 향유 방식과 의식의 문제를 규명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떤 맥락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경기도 파주 지역의 대표적인 풍속신앙 전설의 하나로 전승되게 되었는가 하는 향유 양상의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된 문제이다. 둘째는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설인귀를 한국 전설의 전통적이지 보편적인 내러티브 방식인 풍속신앙 전설 유형의 그것에 따라 전설의 주인공화 하여 향유하고 있다면, 풍속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설인귀가 경기도 파주 지역의 지역 전설 향유층 속에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부터 따져보기로 하자.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설인귀가 한국의, 그것도 하필 경기도 파주 지역에 전승되는 풍속신앙 전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맥락으로 지목할 수 있는 배경은 경기도 파주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고대사와 관련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일단 설인귀는 고구려와 당나라가 국운을 걸고 격돌한 동북아시아 대전쟁인, 고·당 전쟁의 중국측 구성원이다. 설인귀라는 인물이 고·당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작은 축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전설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고·당 전쟁이 종결되는 시점인 7세기 후반 무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설인귀란 중국 인물에 관한 풍속신앙 전설이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형성되는 역사적인 배경의 맥락



은 5세기 무렵으로 소구된다. 설인귀라는 인물은 고·당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고구려의 적국인 중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파주 일대의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 형성의 역사적 맥락은 일차적으로는 이 지역과 중국과의 관련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반대로 동북아 질서 속에서 중국과 헤게모니 다툼을 벌인 이해 당사국인 고구려와의 관련성과 이차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기도 파주 일대와 설인귀라는 중국 출신 인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외에도, 중국을 매개로 한 파주 지역과 고구려의 역사적 관련성이 설인귀 전설을 파주의 지역 전설로 만든 한 중요한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감악산비의 설립이 파주 일대에 대한 신라의 통제권을 대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내포한 것이라 할 때, 경기도 파주는 신라의 타도 고구려를 위한 북방 전략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대고구려 군사전략을 위한 핵심 거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파주 지역은 신라의 대고구려 역사의식 속에서 반고구려 의식의 지리적인 거점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 속에서 경기도 파주 지역은 신라가 주체가 된 반고구려 의식과 본격적으로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설인귀는 제3차 고·당 전쟁기로 구분되는 나·당 전쟁기<sup>36)</sup>에 파주 지역을 무대로 고구려군을 대파함으로써 신라의 반고구려의식의 상징적인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급기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와 대치하며 대외적인 국가 수호의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남북국 시대를 거치면서 지역과 국가를 수호하는 민중의 신격이자 국가의 호국신격으로 격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고·당 전쟁이 중국과 인접한 고구려의 요동 일대에서 진행되어 한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반면, 제3차 고·당 전쟁 즉, 나·당 전쟁은 한반도, 그것도 신라와 고구려의 격렬한 세력 각축장이었던 파주를 주요 거점으로 하여 전개되었던 만큼, 신라측에서는 당나라 연합군의 사령관이었던 설인귀를 반고구려 의식과 결합하여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8세기 무렵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성립하고, 당나라가 고구려의 후기 수도였던 안동도호부를 철수하자 신라는 발해와 적대 관계 속에서 그들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36) 한국 전쟁사에서 나·당 전쟁은 말기 고·당 전쟁, 즉 제3차 고·당 전쟁으로 분류되며, 이 말기 고·당 전쟁에서 당나라 군대를 통솔한 주축의 하나가 바로 설인귀였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사』 3(국사편찬위원회, 1973~1979); 『나·당 전쟁사』(국방군사연구소, 1999)를 참조.

국토를 수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발해에 대한 신라의 인식태도는 고구려의 계승 국가에 대한 대결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라의 북방 한계선에 속하는 경기도 파주 일대를 중심으로 반고구려 의식의 상징인 설인귀가 신격으로 부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인귀에 대한 신앙은 신라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호국신격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파주 일대의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민중의 수호신으로 존재하는 이중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파주 지역에 집중되는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은 특히 후자의 민중 수호 신앙적인 국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자. 경기도 파주 지역의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이 이 일대를 대고구려 군사전략 거점으로 한 신라의 반고구려 의식을 향유의식의 한 축으로 하여 탄생했다면,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내러티브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풍속신앙의 대상은 민중의 기원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신격이다.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설인귀를 우리의 전통적인 민중의 풍속신앙 전설의 유형구조 속에서 재맥락화 하게 되면, 설인귀는 중국 당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에 위치한 신라 민중의 안녕과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영웅이 된다. 설인귀는 신라의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호국의 신격이 되는 것이고, 경기도 파주 일대 공동체 구성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민중의 신격이 되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 일대의 지역 전설로 존재하는 설인귀 전설 속에서 중국 출신인 이 인물을 일괄되게 경기도 파주 주월리 적성면 출신임을 강조하며, 율포리·무건리·마제리·솔마치·감악산 등의 구체적인 파주 지역의 지명과 설인귀를 연결시키는 것도 설인귀를 이 일대의 지리적·전통적인 맥락 속에 재맥락화 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설인귀가 중국 사람이라는 역사적인 사실도 본래 경기도 파주 주월리 적성면 출신으로서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변형된다. 설인귀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태어나 당대 동북아 국제 질서의 주무대인 중국에서 성공한 신라의 영웅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 체계 속에서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내러티브는 파주 지역의 토착적인 수호신에 관한 스토리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중국 사람인 설인귀를 대고구려 저항운동의 상징적인 매개체이자, 신라의 수호신 혹은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설인귀란 인물을 역사의 사료가 전하는 맥락에서 분리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풍속신앙 전설의 유형구조 속

에서 재구성하여 향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V.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금기구조와 서사구조적인 특징 및 전승양상의 역사적인 맥락과 향유의식을 규명해 내고자 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설인귀와 관련된 한국 고·당 전쟁문학의 향유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 속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과제, 즉 중국 인물인 설인귀를 주인공으로 한 한국 고·당 전쟁문학이 오랜 기간 동안 널리 향유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1.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은 감악산 설인귀비 유래담으로 존재하며, 그 서사구조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제향의 요구와 징치의 패턴이고, 다른 하나는 접촉 금기와 징벌의 패턴이다. 제향과 공양을 요구하는 패턴이든 사당·비석·공물에 접촉을 금지하는 패턴이든 모두 신격이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정하게 제한하는 전제 사항이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징벌을 내리는 금기의 서사로 구조화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금기구조는 대외적으로는 고·당 전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당나라, 신라의 역학관계와 대내적으로는 한반도 내부의 왕조 교체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치·행정·종교적인 지배구조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변이과정을 보여준다. 그 역사적인 변동은 세 단계로 나타난다. 제1단계는 설인귀 신앙이 감악산 신앙과 결합하는 단계이다. 통일신라의 성립과 발해와의 대치라는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설인귀 신앙을 빌어 고구려의 영향을 타파함으로써 통일신라의 정치적 지분을 확대하고 민족의 정신적인 통합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2단계는 감악산 신앙이 설인귀 신앙과 분리되는 단계이다. 고구려의 적자임을 선포한 고려의 성립과 북방 고토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제3단계는 감악산 신앙이 유교적 합리주의와 대립하는 단계이다. 고려 충선왕조에 유교가 도입됨에 따라 유교적 교화 확대를 위해 토착신앙을 타파하고, 동시에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토착세력을 일소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

3.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향유의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규명했다. 첫째는 어떤 맥락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경기도 파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전설의 하나로 전승되게 되었는가 하는 향유 양상의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된 문제이다.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은 경기도 파주 지역의 설인귀 전설이 이 일대를 대고구려 군사전략 거점으로 한 신라의 반고구려 의식을 향유의식의 한 축으로 하여 탄생했다. 둘째는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설인귀가 경기도 파주 지역의 풍속신앙 전설 향유층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 사람인 설인귀를 대고구려 저항운동의 상징적인 매개체이자, 신라의 수호신 혹은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설인귀 전설의 내러티브를 우리의 전통적인 풍속신앙 전설의 유형구조 속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윤우, 「감악산비와 칠원고석정」. 『경주사학』 9, 1990, 43~44쪽.  
나희라, 「신라 국가제사의 체계와 성격」. 『한국사연구』 118, 2002, 113~134쪽.  
변태섭, 「고려전기의 외관제」.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서울: 일조각, 1971, 116~147쪽.  
서영대, 「한국고대 신 관념의 사회적 의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이이화, 『역사 속의 한국불교』. 서울: 역사비평사, 2002.  
정우영, 「운계사 고석비와 감악산 무속신앙의 시원」. 『경기향토사학』 6, 2001, 103~162쪽.  
조희웅(외), 『경기북부구전자료집(1)』. 서울: 박이정, 2001.  
파주군지편찬위원회, 『파주군지』상. 파주군, 1995.

## 국 문 요약

본 연구는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금기구조와 서사구조적인 특징 및 전승양상의 역사적인 맥락과 향유의식을 규명해 내고자 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설인귀와 관련된 한국 고·당 전쟁문학의 향유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 속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과제, 즉 중국 인물인 설인귀를 주인공으로 한 한국 고·당 전쟁문학이 오랜 기간 동안 널리 향유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은 감악산 설인귀비 유래담으로 존재하며, 그 서사구조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제향의 요구와 징치의 패턴이고, 다른 하나는 접촉 금기와 징벌의 패턴이다. 제향과 공양을 요구하는 패턴이든 사당·비석·공물에 접촉을 금지하는 패턴이든 모두 신격이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정하게 제한하는 전제 사항이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징벌을 내리는 금기의 서사로 구조화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은 고·당 전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당나라, 신라의 역학관계와 대내적으로는 한반도 내부의 왕조 교체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치·행정·종교적인 지배구조의 변동에 따라 일정한 변이과정을 보여주며, 그 역사적인 변동은 세 단계로 나타난다.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의 향유의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규명했다. 첫째는 어떤 맥락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경기도 파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전설의 하나로 전승되게 되었는가 하는 향유 양상의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된 문제이다. 둘째는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설인귀가 경기도 파주 지역의 풍속신앙 전설 향유층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 투고일 : 2007. 3. 15.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설인귀 풍속신앙 전설(Seolingui religious legend), 설인귀(Seolingui), 고·당 전쟁(Koguryo and Dang war), 파주 지역 전설(region legend in the Paju), 감악산(Gamac-mountain), 설인귀비(Seolingui's monument in Gamac-mountain).